

삼정초, 학부모와 함께하는 '뒤돌아영'



삼정초등학교(교장 김숙희)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교내에서 학생 60여명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뒤돌아영을 개최하고 편지 낭독하기 및 운동회 등을 펼쳤다. <삼정초 제공>

서양새마을금고, 공제 계약 2000억 달성



서양새마을금고(이사장 안두경)는 공제 유효계약고가 광주 최초로 2000억이 달성을 축하하고 3000억 조기달성을 위한 행사를 지난 26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었다. <서양새마을금고 제공>



콜핑 가족사랑마라톤대회 성료

부산대회 6000여명 참가

아웃도어 브랜드 ㈜콜핑과 KNN이 주최한 제9회 콜핑 가족사랑 마라톤대회가 지난 26일 부산 강서구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콜핑이 새로 론칭한 콜프웨어 비티알(BTR) 후원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단위로 60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10km 와이드 레이스, 15km 로드 레이스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고 인공 비와 눈을 맞으며 땀 수 있는 이색 코스도 포함돼 호응을 얻었다. 10km 부문은 강병성·이민주씨가, 15km는 장성연·정순연씨가 각각 남녀 우승을 차지했다. 콜핑 측은 "아웃도어 산업 육성과 함께 국민건강 체육 진흥에 도움이 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브랜드로 1983년 설립된 콜핑은 '콜핑이면 충분하다'는 슬로건 아래 현재 전국 360여개 매장을 두고 있고, 미주·중국에도 80여개를 운영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우리 땅 지키기” 지속적 역할 고민할 겁니다”

‘영·호남 독도탐방대’ 참여 전남대 최시연씨

독도를 딛고 바라보니 애국심 절로 생겨



“직접 본 독도는 정말 멋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우리 땅을 보며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독도를 다녀온 후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한 반짝 활동으로 그치지보다 지속적인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어요.”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독도에서 영·호남 교류 독도탐방대를 기획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2일 새벽 4시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서 배에 올랐다. 하늘은 흐렸지만 파도가 높지 않아 출발한 지 3시간 30분 만에 울릉도에 닿았다. 봉래포구부터 행남 해안까지 울릉도 곳곳을 누볐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자연이 빚어낸 기암괴석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독도’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다.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과 독도전망대까지 둘러보지 그곳에 대한 궁금증은 커져만 갔다. 독도탐방이 예정됐던 셋째 날 아침부터 내리는 비에 일행들은 배가 출항하지 못할까봐 가슴 졸였다. 어렵게 닿은 땅 독도에서 보낸 시간은 탐방대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됐다. “독도 앞에서는 아름답다는 말 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멋진 자연을 두고 한일 두 나라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비극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대부분 민간인 통제 구역이라 제한된 지역에서 30분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이 평생 기억될 거 같아요.”



‘독도탐방대’라는 이름으로 모인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대학생 125명은 지난 광복절 우리 땅 독도를 찾았다. <독도탐방대 제공>

최씨는 독도를 딛고 바라보며 애국심이 절로 솟는 걸 느꼈다고 털어놨다. 독도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진 그녀는 그곳에서 머문 할 동안 자연과 역사, 이웃나라 일본에 관한 생각이 스쳐갔다고 회상했다. “우리 사회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도발할 때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정말 그 땅이 왜 우리 영토인지, 그들

이 무엇을 위해 망언을 일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학교에서 책으로 백번 배우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아름다운 독도를 보지 못한 저희 가족과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한국인이 알아야 할 인물’ 안중근 편 유튜브 공개

서경덕 교수·가수 윤종신씨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사진 왼쪽) 성신여대 교수와 가수 윤종신씨가 지난 26일 안중근 의사 의건 105주년을 기념해 ‘한국인이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제1탄 안중근 편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6분량 동영상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대한 소개와 현 시대 안중근에 대한 재평가,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동양평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한국어(http://is.gd/MvL04O)와 영어(http://is.gd/YmVaah)로 각각 제작했다. 이번 영상을 기획한 서 교수는 “인도하면 간다, 미국 하면 링컨처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영웅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영웅이 그 나라 이미지를 바꿔 놓듯이 우리 영웅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동영상을 제작했다”며 “이번 동영상은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미국, 프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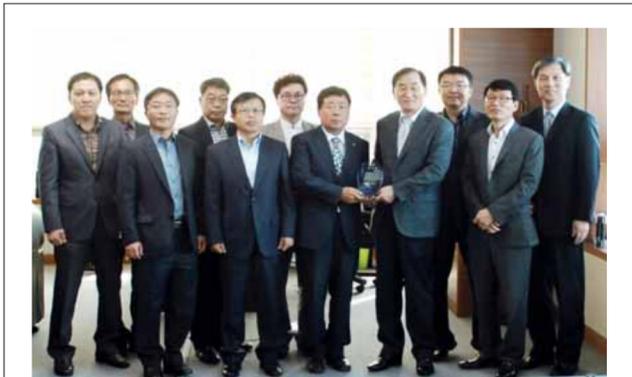


스, 이집트, 중국 등 대륙별 주요 30개국을 선정해 각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와 동영상 사이트에 동시에 올려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CNN,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전 세계 194개국 주요 언론을 활용한 홍보도 함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안재영 광주교대 교수, 방글라데시 비엔날레 커미셔너 선정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안재영 교수가 제16회 방글라데시 비엔날레(12월1~31일) 커미셔너로 선정됐다. 한국미술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안 교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정 경험능력을 바탕으로 기획력이 뛰어나고, 문화예술계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선임배경을 설명했다. 방글라데시비엔날레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주도 하에 1981년 창립된 국제행사다. 성공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국립미술학교와 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한 안 교수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대상, 도쿄국제미술제 아시아미술상, 사술로 디자인비엔날레 본상 등을 수상했다. /김경민기자 kki@



송원대는 지역인재를 위해 장학금 2000만원을 기증한 (주)창원기공 강만석 대표에게 최근 감사패를 전달했다.

인재 육성 위해 2000만원 기탁 송원대, 창원기공에 감사패 전달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사진 오른쪽 네번째)는 최근 대학 총장실에서 (주)창원기공(대표 강만석)에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의 인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송원대에 (주)창원기공이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기탁한 데 따른 것이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원대학교 최수태 총장은 “지역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성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장학금은 내부 규정에 따라 2015학년도 신입생 및 기존 재학생들에게 ‘희망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김갑재(무등일보 주필·광복회 광주전남지부장)·김영씨 아들 대문(우리은행)군 김중현·정숙희씨 딸 선화(우리은행)양 = 11월 1일(토) 낮 12시 30분 리마다 플라자 광주호텔 4층 대연회장.

동창회

▲광주승고고동창회(회장 최경채) 한마음체육대회 = 11월 1일(토) 오전 9시 대교운동장

알림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 = 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 =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 =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료자선봉사 =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펙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 = 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가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 =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 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 = 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회원 = 담양 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류,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 = 즐

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호사랑넷 봉사단 = 뚝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전문문화 보전 연구회원 = 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광주물새 클럽 수영 동호회원 = 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광주시 생활체육아우구연합회 사회인 야구팀 ‘엑스칼리버’ 팀원 = 야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 = 노레교실(화·수·오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 4시) 062-410-5000.

부음

▲최인기씨 별세 강일(BBS광주불교방송 기술부)씨 부친상 = 발인 28일(화) 광주그린장례식장 4층 VIP실 062-250-4455. ▲최중연씨 별세 태화(광주시교육청)씨 부친상 김명식(남도일보 사회부장)씨 장인상 = 발인 29일(수) 광주서구장례식장 070-4480-5146. ▲양상용씨 별세 후기·윤숙·향숙·숙인씨 부친상 = 발인 29일(수) 무등장례식

장 101호 062-515-4488. ▲신순례씨 별세 도중·광삼·경선·광희·영희·경옥씨 모친상 = 발인 29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김봉순씨 별세 귀범·순범·재중·경옥·경희씨 모친상 = 발인 29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안화례씨 별세 이병길·병순·현자씨 모친상 = 발인 29일(수)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p>謹 上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p>	
<p>101호 故조기영 남(남/95세) 子/子婦: 조경철/김영주, 조경진/정영순 女/婿: 조정숙/신종희 孫: 조원형, 조원진, 조영희 *발 인: 10월 29일 *장 지: 임실호국원 *연락처: 227-4386</p>	<p>102호 故민현중 남(남/92세) 子/子婦: 양정근/정성량, 양호근/주미혜 女: 양성순 孫: 양정현, 양정호, 김용복 *발 인: 10월 28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p>
<p>301호 故윤태호 남(남/84세) 子/子婦: 윤영식/김명자, 윤인식/김순희, 윤원식/박인숙 女/婿: 윤영희/최철수, 윤영희/최준수, 윤영미/최영만 *발 인: 10월 28일 *장 지: 장충정령성 *연락처: 227-4382</p>	<p>402호 故송문기 남(남/100세) 子/子婦: 송용문, 송종민/계영순 女/婿: 송상진/김영만, 송성삼/박주환 *발 인: 10월 28일 *장 지: 화산도곡선영 *연락처: 227-4314</p>
<p>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p>	
<p>문의 (062)227-4000</p>	